

# 소갈증의 다양한 합병증



신재용

MBC 「라디오 동의보감」진행자,  
해성한의원 원장

## ■소갈증 합병증 「강중증」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다고 한다. 당뇨병 범주에 해당되는 한의학의 ‘소갈증’에도 합병증을 무겁게 다루고 있다.

소갈증의 유형에는 ‘강중증’이란 것이 있다. 당뇨병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색욕에 탐닉하거나 약제를 남용하여 체내의 필수 에너지인 ‘진기’를 소모시키면 야기되는 증상이 강중증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끓는 물에 눈이 녹듯이 소화가 이상 촉진되고 쉽게 배고픔을 느껴 음식을 자꾸 섭취하려고 든다. 그러나, 먹는 양에도 불구하고 날로 수척해져서 체중 감소가 눈에 띈다. 소변의 형태는 기름이 둥둥 뜬 듯한 모양을 보인다. 입과 입술은 초취할 만큼 건조해지며, 음경이 지속성으로 이상 발기 상태를 유지하여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아도 사정하게 된다. 강중증은 소갈증 중에서 가장 난치증에 속한다. 예후도 좋지 않다.

지속적인 발기도 참기 어렵지만 저절로 정액이 흘러내려 초취해지고, 심해지면 정액 속에 혈액이 섞인 ‘혈정’이 스스로 흘러내린다. 체중 감소도 극도에 달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게 강중증이다.

강중증은 때로 ‘옹저’를 일으킨다. 일종의 악성 종양류에 속하는 게 옹저이다. 이 옹저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

소갈증 합병증으로 이같은 옹저가 잘 생긴다. 종기가 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기도 한다.

### ■소갈증 합병증 「골증」

이외에도 해수, 천식이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나며 ‘골증’이라는 병도 생긴다. 골증의 ‘골’이란 심층이라는 뜻이요, ‘증’은 혼증이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골증은 인체 심층 부위로부터 허열이 혼증하는 병이다.

골증의 설명이 다소 어렵지만 그 임상 표현은 이렇다. 치아가 겹쳐 타들어 간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싸늘해진다, 수척해지고 식사를 못하며 설사를 잘 일으킨다, 사지무력감이 심하며, 잠자는 동안 땀을 흥건하게 흘린다, 밤에 꿈이 많고 꿈 속에서 색스하는 이른바 ‘몽교’라는 증상이 나타난다, 가슴이 후들 후들 떨리고, 양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는가 하면 순식간에 오싹 오싹 떨리기도 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래가 끓는다, 양눈이 모두 어두어지고 옆구리에 통증이 온다, 걸핏하면 화를 내기도 한다 등이다.

이 정도 되면 견디기 어려워진다. 소갈증의 합병증으로 골증이라는 병증이 나타나게 되면 숙지황을 1일 8g씩을 물 500cc로 끓여 반으로 줄여 하루동안 수시로 나누어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혹은 치자 열매를 소쿠리에 담아 흐르는 물에 흔들어 씻은 후 말려서 보관했다가 1일 한개씩을 바스르뜨려 거름통 있는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정도 경과한 다음 뚜껑을 열고 거름통을 걷어내면 그 밑에 치자 열매에서 우러난 물만 고이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시면 된다. 1일 1~2잔을 공복

에 마시도록 한다.

소갈증의 합병증은 이것 뿐이 아니다. 야맹증이 생기고, 백내장이 악화된다. 또 심장순환기계 장애로 증풍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반신불수처럼 수족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심장, 간장, 신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석 부석 잘 붓거나 복부가 팽만해지고 때로는 배에 물이 고이는 복수가 온다.

### ■소갈증 합병증 「탈저」

‘탈저’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갈증이 생기고 손끝이나 발끝이 차지거나 화끈거리고, 색이 변한다. 푸른빛을 띠거나 썩 대추처럼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통증도 심해진다.

손끝에 변화가 오면 팔까지 아파오며, 발끝에 변화가 오면 종아리가 굳어지면서 잘 걸지를 못한다. 절뚝거리거나 걸다가 통증 때문에 잠시 주저앉아 쉬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탈저의 초기 증상이다.

더 진행되면 맥박이 약해지거나 아예 맥이 잡히지 않게 된다. 손발에서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다가 급기야 손발의 끝이 괴사된다. 쉽게 말해 썩어가는 것이다. 까맣게 썩어서 살이 몽그러지고 뼈가 노출된다. 나중에는 뼈까지 까맣게 타들어 가면서 썩는다. 이때의 통증을 동의보감에서는 ‘불가인통’이라고 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표현이다.

탈저가 이쯤 되면 손발을 절단하는 수가

있다. 갈증은 더 심해지고, 입이 바짝 마르며, 심하면 혼수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는 손끝과 발끝을 따뜻하게 하면서 청결하게 해야 한다. 담배는 절대 금하고, 각종 기호식품과 자극성 향신료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흔히 손발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일어나는 증상으로 여겨 소위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손끝이나 발끝에 침을 놓고 피를 빼는 가정요법을 행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극히 위험하

다. 침 놓은 자리마다 모두 붉고 썩어서 속수무책의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갈증 합병증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신경 장애로 인한 설사, 음성 변화 등이 나타나는가 하면 전신쇠약과 땀, 손발의 냉증 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갈증이 합병증까지 일으키게 되면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초기에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DAK**

## 「우리 농어촌 살리기 운동 후원회」

14가지 곡식이 혼합되어 있는 문전옥답 장수미 판매



「우리 농어촌 살리기 운동 후원회」(대표 정승화)는 1995년부터 도시와 농어촌간의 협력 문화 창출을 통한 '都-農 일치 운동'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간 유통 정보화 사업, 농어촌과 농산물의 홍보 사업 및 영농 관광 사업, 환경 사업, 특산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산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농어촌 살리기 운동 후원회」가 판매를 시작한 문전옥답 장수미는 현미, 현미찹쌀, 찹쌀, 녹쌀, 흑미, 기장, 팥, 백태, 서리태, 녹두, 울무, 수수, 차조, 찰옥수수 등 순수 국산의 14가지 곡식이 혼합되어 있어 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편리하게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현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중랑구, 송파구, 강남구, 인천시, 고양시, 안양시에 「우리 농어촌 살리기 운동 후원회」가 있으며 전국 어디에나 배달된다.

1kg은 8,000원, 2kg은 15,000원, 문의는 797-2125.